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학력관과 학교교육의 방향 탐색

박창언 · 김회용[†] · 차철표^{*}

([†] 부산대학교 · ^{*}부경대학교^{*})

A Discussion of schooling related 5-School-Day Week

Chang-Un PARK · Hoi-Yong KIM[†] · Cheol-Pyo CHA^{*}

([†] Pusan National University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ttempted to explore direction for the schooling related 5-school-day week. For this end, first, the social background and educational meaning for the 5-school-day week were reviewed.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5-school-day week and 5-work-day week. And learning by direct and actual experience is emphasized.

Seco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schooling were analysed. It was examined the guidelines for curriculum organization and time allotment proposed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lso, It was checked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qualifications, for example ratio of students to teaching staff, office of education, local government etc.

Third, the direction for the schooling for 5-school-day week were discussed. The object of research related to the 5-school-day week was the applicabilities and limits of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of education office in local to work with the local government.

Key words : 5-school-day week, View of education, Schooling

I. 서론

흔히 학력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의 능력을 말하고,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 실시와 더불어 지적 교육에 편중되어 운영되는 학력의 관점을 새로이 검토함으로써 지적 교육과 비지적 교육의 균형을 도모할 계기로 삼을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주6일제로 학교의 출발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5일 수업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교육을 위한 혁

신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기를 거쳐 2004년에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월 2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였다. 7년이 지난 지금 내년부터는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6월에 발표되었다.

기존의 주5일에 해당되는 하루의 수업일수를 다른 일로 옮긴다면, 주5일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주5일에서 휴업일을 토요일에 하지

[†] Corresponding author : 051-510-2649, khy@pusan.ac.kr

않고, 월요일이나 수요일 등 주중의 어느 요일에 하든 관계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5일 수업에서는 기존의 토요일 수업을 주중으로만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주중의 어느 한 날이 아니라, 토요일을 주5일로 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근로 휴업일을 토요일로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와 함께 토요일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학부모가 학교의 역할을 대신하여 지적인 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지로 학부모가 아동의 발달 수준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전 교과의 수업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주5일 수업은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생활에 필요한 예절이나 윤리관 등을 몸에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요일 휴업일을 가정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행나 문화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함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력도 부활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기존의 학교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가정과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되면서, 아동의 학습에 대한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데 주5일 수업의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학교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학력관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 주도적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중시하게 되고, 보통교육 단계로서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완결로 보는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기초로서 학교교육을 여기게 되며,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이 전개되며, 교사주도의 학습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의 실시를 앞두

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주5일 수업을 표현하는 방법은 학교 5일제, 주5일제 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지만, 여기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사용하는 주5일 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맥락에 따라 주5일 수업제라는 용어와 혼용하고 있다.

II. 주5일 수업제와 학력관

여기서는 주5일 수업에서 학력관을 알아보기 위해 21세기의 사회변화와 주5일 수업의 도입 과정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전면적인 주5일 수업에서의 학교를 보는 관점의 변화에 따른 학력관의 변화도 알아보려고 한다.

1. 21세기 상황과 학력관

광복 직후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과 관습을 계승하거나 이를 새로이 조망하고자 하는 준비와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양교육의 사상과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공적인 교육체제는 관료제의 도움으로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교육 제도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아오게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안교육 분야가 들어서고, 재택학교, 사이버 학교 등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교육 체제에 대한 재구조화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이종태, 2004: 69-91). 전통적 교육체제의 재구조화는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 기존의 사회적 변화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신자유주의, 지식기반사회 등의 용어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들 중 경제분야에서 주로 언급되는 지식기반사회는 기존의 근대사회의 산업화된 특징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농업사회에서의 지식은 삶과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산업사회는 지식을 삶에 적

용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는 삶과 통합되는 사회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식기반사회가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가 단순히 단편적인 정보나 지식이 그 자체가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지식 교환되고 확산되며 재구성되는 것에서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의존하게 되는 사회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담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이의 활용을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대표되는 근원적 힘과 조건에서 이에 대한 사항은 쉽게 파악이 된다. 정보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정보기술에 관련된 장비에 투자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직장 내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고객과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의 상호 교섭과 거래 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영 체제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기능을 단순히 적용하는 단계를 벗어나 인간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 협상 등의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능력은 한 나라 내에서의 기업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세계적인 지적 안목과 국제 환경에의 적응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특히 국내·외의 경쟁체제의 본격화 등으로 인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과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적용하는 단계를 벗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개방적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천보선·김학한, 1998: 112-113).

교육내용의 변화는 교육방법의 변화를 가져오

게 되고, 지식이나 기능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지식관의 변화는 교육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에 학문을 중심으로 한 이론 교육과 생산적 활동을 전제로 하는 직업교육을 엄격히 분리시켜 학교교육에 한정되던 교육이 학교 밖의 사회 교육프로그램과 밀접히 연관을 맺으면서 평생교육이 정규 교육 못지 않게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교육의 장을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형태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관의 변화는 학력을 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당연히 요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력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의 능력 혹은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이른다. 개방적인 형태로의 교육내용의 변화와 이에 부합하는 교육방법의 변화, 즉 지식관과 이에 따른 교육관의 변화는 당연히 학력을 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학력관에서는 학력을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습득함으로써 많은 양의 지식을 체득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력, 표현력, 창조력 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加藤幸次·中澤美子, 1998: 44-4). 새로이 강조되는 형태의 학력을 보는 관점은 주로 학습자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강조된다고 해서 지식과 이해를 경시하여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지식과 이해의 토대 위에 사고와 판단력 및 창의력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존의 지식과 이해를 위주로 하던 학력의 개념에서 관심과 의욕 및 태도 등도 함께 중요시함으로써 지식과 이해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학력에서는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 직접적 경험은 인간의 오감을 활용함으로써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사고력과 판단력 및 표현력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길러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과 이해를 위주로 하는 간접적 경험과 직접적 경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 이해와 태도, 관심 의욕의 균형,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의 균형을 이루어야 제대로 된 학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보화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교육의 강화, 창의력과 주체성을 함양하는 교육, 교육과정의 역동화, 교육공간의 확대와 평생교육권의 확보라는 패러다임을 요청하는 것이다(천보선·김학한, 1998: 116-119). 최근 융합형 인재의 양성을 위해 STEAM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정아 외3, 2011).

2. 주5일 수업의 도입과 학력관의 변화

앞서 언급한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 세계화라는 사회환경의 변화는 주5일 수업의 도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서구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오래전에 주5일 수업으로 출발을 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학기의 운영이나 방학의 결정은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선택을 하고 있어, 현재는 주4일 수업제가 실시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학교가 설립되었을 당시부터 주5일 수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주5일 수업의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이다(구자역 외, 2003: 91).

동양권에서는 일본은 1992년 9월부터 월 1회 주5일 수업제를 시작하여, 1995년에 월 2회로 확대되었고, 2002년부터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5일 수업제는 국제적 요청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교육의 조건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며, 2002년 신학습지도요령의 실시에 맞추어

아동의 학교 생활에 여유를 갖게 하면서,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강화한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신문승·이주영·권동택, 2011: 136). 중국은 1994년 주44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초·중등학교에서 격주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었으며 1995년 5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5일 수업 이외에 주말 보충수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주5일 수업이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학교의 설립 초기나 오래전부터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이 이루어진 서구와 달리, 동양의 경우는 주6일 수업에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직접적 계기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면서 도입과 경과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주6일 수업에서 주5일 수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직접적 계기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응력을 기르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실질적인 주5일 수업제가 논의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5일 수업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시발은 1980년대에 시작됨으로써 노동시간의 단축을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초 국민당에서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2년에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부산에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주5일 수업제를 확대 실시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당이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새롭게 조명된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 노동계의 노동시간 감축 요구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검토에 있다. 정부의 주5일 수

업제는 초등학교에서 토요일에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본격적인 주5일 수업제의 논의는 2000년 5월 17일 노·사정 위원회 내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되고, 이에 따른 정부 차원의 주5일 근무제 협의가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2001년부터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운영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8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1년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부터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6.14. 보도자료). 그리고 2011년 10월 25일자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수업일수 조항을 개정하여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로 조정하였다. 수업일수에 대한 안을 제안할 당시는 모든 학교가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할 것을 전제로 190일을 제안하였는데(박창언, 2010), 실제 법령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 월2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연간 205일을, 주6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220일의 연간 수업일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을 발표하고, 법제까지 정비한 것은 향후 전면적 주5일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정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이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이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제정이라는 기반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게 된 것이다. 주5일 근로시간의 확립은 부모가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만들게 되었고, 이들 여유 시간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주5일 수업제도 토

요일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을 노는날로만 보는 관점은 아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정부 차원의 전면적 주5일 수업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토요일 휴무일을 아동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력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교사와 함께 하던 교육을 학교 외 장소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의 장과 교육의 주체를 보다 확장시킨 것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의 도입은 간접적이고, 지식 위주의 전달형 교육에서 체험을 통한 직접적이고, 태도와 흥미 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력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교육력의 변화는 기존의 학력을 보는 관점에서의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사고의 변화가 없다면, 토요일 휴업일은 단순히 노는 날에 불과한 것이며,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을 실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토요일돌봄 및 교육프로그램을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 주5일 수업제 지원체제 구축 등을 내놓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있다.

Ⅲ. 주5일 수업과 학교 교육의 현황

여기서는 주5일 수업에서의 학력관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적 교육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 정비의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와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직접적 교육활동 관련 현황

교육은 가르치는 자가 교육내용을 매개로 하여 배우는 자를 대상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교육학에 입문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교

육의 세 주체를 언급할 때, 교육을 성립시키는 기본 조건을 토대로 이야기 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이들 세 주체는 교육이 성립하는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만으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다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건의 정비에는 학교라는 공간적 시설, 칠판, 교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이들 사항에서 주5일 수업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 사항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현황이 제대로 드러나야만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을 교과와 범주에 따라 조직해 놓았다. 그래서 교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알 수 있고, 교육의 방향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력관에서 나타나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교과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수업과 학습을 위한 활동영역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돈희, 1998: 14)로서 교과가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가는 현재의 학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 그리고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 현재의 국가와 사회적 요구 사항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초등 1, 2년, 중·고 1년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급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설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진로를 개척하고, 국가와 지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5일 수업제에서 추구하는 학력관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구성방침은 창의적 인재를 구성하는 교육과정 구성, 학년군의 설정, 기존 교과와 교과군으로 재분류, 집중이수제의 도입,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 구성방침은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교과와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교과(군)의 설정과 그 시간의 배당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관이나 학력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군)은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의 7개이며, 중학교는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의 8개로 되어 있다. 기존의 10개 과목에서 모두 7-8개 과목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교과와 구체적 명칭과 시간배당을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성방침에 제시된 내용이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지적 교과활동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4학년은 예로 보면(학년군제에 따라 초등학교 3, 4학년은 하나의 군으로 묶여 3학년과 4학년의 구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학년군으로 되어 있다), 연간 총 1,972시간 가운데 창의적 체험활동 204시간과 예술(음악/미술) 272시간, 체육 204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영어 등의 수업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3개 학년 전체가 학년군으로 되어 있어, 3년간의 총 수업시간수 3,366시간 가운데, 창의적 체험활동 306시간, 체육 272시간, 예술(음악/미술) 272시간 등이 비지적 교과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역시 3개년이 학년군으로 되어 있으며, 3년간 총 이수단위 204시간 가운데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체육·예술 교과 영역 20단위가 비지적 교과활동 시간으로 배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 배당은 21%-34%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교과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은 대부분 주지적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2007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비교해 보면, 주5일 수업과 관련된 학력관에 어느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학년 체제에 따른 시간배당이 아니라, 학년군에 따른 시간 배당을 하고 있어, 시간의 배당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학년군에 해당되는 시간을 합하면, 각 교과별 수업시수의 증감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지적 교과에 배당된 시간의 증가폭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 1,904시간에서 1,972시간으로 68시간이 증가되었다. 각 교과별 상황을 보면, 변동이 없는 시간은 사회/도덕(272시간), 수학(272시간), 과학/실과(204시간), 체육(204시간), 예술(음악/미술)(272시간)이 기존 교육과정과 동일한 시간 배당이 되어 있다. 증가된 교과는 영어과 시간이며, 감소된 교과는 국어와 창의적 체험활동이다. 영어는 68시간에서 136시간으로 68시간 증가하였지만, 국어는 438시간에서 408시간으로 30시간 줄어들었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238시간(재량활동+특별활동)에서 204시간으로 34시간 줄어들었다. 비지적 교과에 해당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오히려 34시간 줄어들었다는 것은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3년간 총 수업시수가 3,366시간으로 기존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들 중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등은 기존 교육과정과 시간배당은 동일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306시간으로 기존의 재량활동 306시간과 특별활동 204시간을 합한 510시간보다 줄어들었고, 결국 기존의 재량활동의 시간만이 옮겨져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종국적으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내건 기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은 총 수업시수나 비지적 교과의 시간배당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시간배당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나타난 교과와 시간배당 외에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각론에서 각 교과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다. 주5일 학력을 보는 관점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수행평가의 비중 확대, 창의적인 면이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해 실시, 학교 밖의 교육수단을 통해 익힐 수 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2). 평가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항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교과의 평가에서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의 강조와 같이 표현상 일부 다른점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5).

위와 같은 사항을 볼 때, 현재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추구하는 인간상과 같은 일종의 교육목적은 주5일 수업에서 추구하는 교육관이나 학력관과 모순되지 않고 있다.

둘째, 구체적인 교과 명칭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교과군이나 학년군의 형태로 교과 교육과정이 개정되지 않고, 기존의 교과로 구분되어 개발되어, 총론의 의도가 퇴색되고 있다. 셋째, 시간배당은 아직까지 지적인 교과를 위주로 하여 편성이 되어 있다. 넷째, 교수·학습방법은 각 교과에 일임하여 교과의 특성을 살려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평가는 기존이나 현재나 서술형 관찰과 태도 평가 등을 중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현행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이나 평가 등에서는 주5일 수업제에서의 교육관이나 학력관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교과나 시간배당은 이러한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지적 교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주된 과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2. 교육조건의 정비

교육행위가 조직적이며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그것에 적합한 장소와 건물, 교재 및 교구 등의 물적인 조건과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 조건이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교육조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물적 조건과 인적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兼子仁, 1989: 343). 우선 인적 조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인적인 조건은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일컫는 말로서 학생의 학습 조건이 되는 인적 조건이다. 이러한 인적 조건은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교직원의 근무조건이 되는 것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교직원의 근무조건보다는 학생의 학습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원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11년 OECD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EU21, G20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에 제시된 자료를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OECD, 2011: 403).

<표 1> 교사 1인당 학생 수

구분	대한민국	OECD 평균	EU 21 평균	G 20 평균
초등 교육	22.5	16.0	14.5	19.1
전기 중등교육	19.9	13.5	11.5	15.9
후기 중등교육	16.7	13.5	12.4	15.1
전체 중등교육	18.2	13.5	12.1	15.4

이러한 국내·외 지표를 고려할 때,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는 OECD 평균의 70%,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80% 수준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은 EU 21과 비교하면 더욱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초등학교는 EU 21 평균의 64%, 중학교는 58%, 고등학교는 7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규 교원의 충원이 필요하고, 보조 교사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이상으로 정규 교원 수 증원을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규교원 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이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강사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경우 교육청의 CRM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강사를 섭외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 교과 운영시간에서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등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재구축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프로그램

의 개발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적·물적 네트워크 기반이 취약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서는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교육시설과 관련된 설치와 유지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맡고 있으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기관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화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사항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활동의 원만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육활동에서 교육청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청 수준의 교육활동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4-25).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문기능 담당위원회 구성
- 연구학교의 운영과 교과별 연구회 활동의 지원
- 교육과정 컨설팅을 수행할 지원기구의 조직
-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의 개발·보급과 적기에 교원 진보 시행
-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자원목록의 작성 제공
-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특별보충 수업의 행정적 지원
- 지역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의 조정과 지원
- 공통교과 미이수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교육시설을 통한 이수과정 인정방안 마련
- 초등 저학년에게 대한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배려와 지원
- 학교와 인접 교육청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원
-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질 관리에 대한 필요

한 사항 지원

이들 사항 중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자원목록의 작성 제공, 공통교과 미이수자 대책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활용한 이수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과 협조체제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조체제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존재하고,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 이외의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장을 함으로써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 기관장이 존재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나 사회 유관기관의 시설은 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사항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관리 주체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연계 프로그램이나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이들 두 기관장의 협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 집행기구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므로써 지자체의 장과 교육감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교육조건의 정비와 관련된 현황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첫째, 정규 교원이 OECD 수준에도달하도록 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과 순회교사를 활용하여 학교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강사 선발 등에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가 미비하다. 셋째, 지역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집행기구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교육의 조건 정비는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된다. 주5일 수업에서는 정규 교육에서서의 변화도 불가피하지만, 정규 교육 이외의 방과 후 학교나 토요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정비는 지자체의 관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5일 수업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과 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기구 등을 정비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IV. 주5일 수업에서의 학교교육의 방향 탐색

여기서는 주5일 수업을 실천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육활동의 방향과 조건정비의 방향으로 구분하여 주5일 수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1. 학교 교육활동의 방향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은 기존의 주6일 수업이나 월 2회 주5일 수업에서의 토요 수업일에 해당되는 수업시간을 주중으로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주5일 수업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나 학교 역할에 대한 재조명 등에 대한 사항이 논의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할 경우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고, 운영 방법의 개선을 통해 주5일 수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에 기반하여 현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활동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의 실시를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을 발표하면서 개정 교육과정이 “주5일 수업을 전제로 수업시수를 결정하여 고시”(2011.6.14.) 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수업시수만의 결정이며, 기존 교과와 재구조화에 따른 내용 구성의 방식과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전면적인 고려까지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본다면, 주5일 수업에 부적절하게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의 자율화를 강조하면서 수업시수의 20% 증감이나 교과군, 학년군 등의 설정을 통해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수업시수와 교과 운영에서 탄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다.

교과 운영의 탄력성은 주5일 수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수업시수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 2회 주5일 수업에서의 토요 휴업일에 해당되는 부분의 수업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수업시간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과 시간 이외의 사항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는 기존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기존의 부활동이나 클럽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업식과 입학식 등 학교행사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시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아동에 따라 기존의 특별활동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싫어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이 충족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특별활동에서 행하였던, 부활동이나 클럽활동 등은 정규 수업시간에 넣지 않고, 방과 후 학교나 휴업일에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특별활동의 수업시수는 정규 수업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을 구분하여 정규 수업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으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정선(精選)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양적인 측면의 활동을 삭감하고, 질적으로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과외 활동과 달리 정규 활동은 20% 증감을 할 수 있고, 교과군과 학년군을 통해 집중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규 교과외 20% 증감 운영은 기수 시수를 순증하는 모형, 증감을 하되 증배를 더 많이 하는 모형, 증감을 균형있게 하는 모형 등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모형에 기초해 특정의 교과(군)을 증배하는 모형도 구안할 수 있다. 국어·수학·영어 등을 강화하는 모형, 사회·역사·도덕을 강화하는 모형, 과학/기술·가정을 강화하는 모형, 체육, 예술(음악/미술)을 강화하는 모형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조난심 외, 2009). 이들 증감 모형은 교과내용의 재구성과 교육과정 압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군) 20% 증감은 주5일 수업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집중이수제는 교과의 수업을 블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블록타임을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현재의 수업시간을 80분, 90분, 100분 등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 타임은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블록타임은 미국의 중핵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핵 교육과정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의 탐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학생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경험을 조직해 놓은 교육과정인 것이다. 여기서의 중핵은 사회적 문제나 청소년의 문제나 관심 등이 해당된다. 중핵 교육과정은 빽빽하게 짜여진 중등학교 수업 일정을 개선하는 블록타임제를 도입하고, 학습자의 관심을 반영시키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

하고 있는 체제를 지니고 있다(이성호, 2009: 276). 이러한 블록타임은 학년군과 교과(군)을 도입하여 교과집중이수를 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주5일 수업에서의 블록타임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교과 내용의 조직과 이에 적합한 수업방법의 동원은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주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신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김은갈·현동림·김중훈, 2011). 교육현장에서 모든 교과를 이렇게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지만, 그 방향은 주5일 수업에서 말하는 학력관에 부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 결과는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 체험이나 표현력, 문제해결력 등을 중시할 경우 양적인 평가방식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질적인 평가 방식이 권장되어야 하며,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어, 주5일 수업제의 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5일 수업제에서는 학교라는 제한적인 교육의장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교육의 장이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 외에도 이들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까지 학교의 개방은 주로 학교 휴업일이나 방과 후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외부인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역의 시설이 한정되거나 적은 곳에서는 학교의 이용에 대한 요청이 증가될 것이다. 역으로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을 한다면, 정규 수업시간에도 체험을 위주로 하는 교과활동에서는 지역사회의 시설을 활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학생이 방문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체험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우는 것이다. 구립이나 시립 도서관의 개방 시간도 연장하거나 기능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서적만을 빌려쓰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이 정보를 검색하거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학교 교육 자체의 방향도 변화하여야 하지만, 교육의 장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것은 학교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교육의 장이 확대되는 것이지 아동의 교육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주5일 수업은 보다 풍부한 교육 실천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학부모의 교육공동체로 재탄생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교육조건 정비의 방향

가. 인적조건

인적인 조건의 정비의 방향은 정규 교원의 증원과 더불어 보조교원의 활용 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육예산과 관련된 교육정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할 수 있는 기간제 교원과 순회교사에 대한 사항,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사풀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순회교사와 시간제 기간제 교원을 최대한 활용,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강사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순회교사는 교원의 수급이 취약한 학교의 교단지원과 선택 교과 확대에 대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관련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입법 조치는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것이다. 주5일 수업과 관련된 국가 교육과정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서도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순회교사 외에도 기간제 교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는 국공립학교법 없이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수준별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융통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이외에도 교원자격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풀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센터와 학교간의 협력 체제도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CRM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담당 교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고 있다. 모의 국회 등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외부) 기관에서 공문이 오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교사가 관련 분야의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연극이나 무용 등과 같이 전문적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학교의 요구사항을 입력하여 필요한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업무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센터로 이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그대로 지속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주5일 수업에서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 활동이나 토요 프로그램 등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센터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학교의 교육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월2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할 때에 비해 전면적 주5일 수업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토요 휴업일 교육 활동을 위해 많은 아동에게 박물관이나 예술관 등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용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토요 휴업일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논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길게 본다면, 단순히 많은 아동을 수용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토요 휴업일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의 문제와 관련지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된다.

아동의 표현력과 창의력의 원천이 되는 직접적 경험으로서 체험활동은 지적 위주의 교육을 행하는 교육현장의 간접적 체험을 보완함으로써 개인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 비록 학교 교육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사항이 존재하고 있지만, 비지적 교과 학습은 지적 교과의 학습의 1/3내지 1/4정도가 되기 때문에 토요 휴업일에 행하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체험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박물관과 미술관, 예술관 등의 인프라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시설은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정규 교과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국적으로는 개인적 학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강조되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연계 체계가 잘 구축이 되고, 이에 적절한 강사풀이 운영될 때 가능한 것이다.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은 교사만의 역할이 아니고, 보호자 역시 교사와 마찬가지로 지도와 조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시설 등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강사 역시 이러한 역할을 함께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제도적조건

제도적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다.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은 관공서, 체육관, 공원, 운동장, 문화회관, 사회복지 단체, 박물관 등을 말한다. 이들 유관기관은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가운데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을 설치 및 관리
-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법에서 규정한 사항만 보더라도, 직접적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뿐만 아니라, 토요 휴업일에 직접적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만 주5일 수업제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연계를 필요로 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있는 운영,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지원, 방과후 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의 연계 및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 해당된다.

지역사회의 연계를 요구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있는 운영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수·학습의 실생활 중심의 학습이나 체험중심의 교수·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활용하고,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초등 저학년 돌봄 교실은 정규 교육활동과는 별개로 학교에서 학생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의 연계와 지원은 지자체에서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교육복지투자에 대한 우선지역 개발 사업,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 등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은 학교,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지역아동 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사설 기관과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은 청소년 문화와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붕괴나 약화되었다는 것은 학교외 활동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동의 생활공간의 개인화와 밀실화, 핵가족화 가정과 직장의 분리 등이 지역이나 가정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쇠퇴하게 하는 악조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학교 외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쇠퇴한 지역과 가정의 교육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와의 문제와도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다. 지역과 가정의 교육력 쇠퇴는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참가의 경험을 확대하고, 책임감과 지도성, 협조성 등 리더십이나 복종심 등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 기초를 기르는 것이 학교교육이며, 학교 외 활동은 풍부한 학교교육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시설 등을 원활히 하는 것은 주5일 수업에서 필수적인 여건이 되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장과 교육감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협의회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협의체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나 센터가 없는 관계로 실질적인 협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체의 구성과 운영, 재정투자의 협력과 시설의 공동이용 협약, 평가와 피드백 체제의 구축으로 주5

일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제의 실질적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인적 지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 교과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인력의 지원을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센터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에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협력 체제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등의 협력 증진을 위한다 있으며, 위원장은 지자체 장이며,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외에 실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제시된 이러한 사항은 학교에서 정규 교과활동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에서도 이들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육력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조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교육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기능적 역할 분담 체제를 마련하고, 학교와의 관계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부서 운영이나 강사 자격의 세분화와 관리 체제의 확립,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기관과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에 기여하도록 하여 내실화를 다지는 방향을 전개하여야 한다. 결국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을 학교 외로 확장시켜, 교육과 관련된 주체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로 기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주5일 수업에서의 학력관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학교교육의 방향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사회변화와 주5일 수업의 도입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주5일 수업과 학교 교육의 현황을 교육활동과 교육조건의 정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주5일 수업에서 학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들 논의를 통해 주 5일 수업에서의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도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을 지식과 기능을 전달하는 방향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주5일 수업에서는 교육의 장이 가정과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교육활동이 보다 풍부해지고, 이에 따라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보다 용이하게 전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사항을 전반적으로 취급하고자 하였지만, 각 교과별로 구체적인 내용 모두를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구체적인 교과의 활동이 가정과 지역에서의 생활적인 형태로 전개되어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확립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 사항의 구조화를 행함으로써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역시 정합되게 움직이도록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항을 총체적으로 취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총론적인 사항으로서 기본 방향이 설정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각 교과의 내용이 검토되고, 이에 대한 교육방법과 평가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교육현장의 교사, 각 교과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사 등이 참여

에 의해 검토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된다. 구체적인 교과의 내용에서 단원을 재검토하고, 이를 재구조화함으로써 교육실천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에 따라 가정과 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과 학교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주5일 수업을 실천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6.14.).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자익·정광희·정규열·오인선(2003). 주5일 수업제 이행과정 국제비교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은길·현동림·김종훈(2011).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알고리즘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 *수산해양교육연구* 23(1). 105~115.
- 김정아·김병수·이지훤·김종훈(2011).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IT 기반 STEAM 교수·학습 방안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3(3). 445-460.
- 박창언(2010). 주5일 수업대비 교육과정과 수업관련 법제화 방향 탐색, *교육법학연구* 22(1). 49~70.
- 박창언(2011). 주5일 수업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백산서당 편집부(1983). *교사와 권리*, 서울: 백산서당.
- 신문승·이주영·권동택(2011). 주요국의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21(4). 131~151.
- 이돈희 외(1998). *교과교육학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성호(2009). 교육과정론, 서울: 양서원.
- 이종태(2004). 근대교육의 기본가정과 그 변화, 황원철 · 김성열 · 고창규, 공교육. 서울: 원미사. 69~96.
- 조난심 외(2009). 교육과정 자율화 현장 적용모형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천보선 · 김학한(1998).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서울: 한울.
- 加藤幸次 · 中澤美子編著(1998). 學校五日制と教育課程の創造, 東京: 黎明書房.
- 兼子 仁(1989). 教育法, 東京: 有斐閣.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 논문접수일 : 2011년 12월 06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2년 01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2월 01일